유럽 게임팬들 'LoL 올스타 2014' 출전 한국 선수들에 열광



프랑스 파리가 LoL 올스타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8일부터 11일까지 파리 르 제니스 아레나에서 열린 LoL 올스타 2014를 보기 위해 유럽의 게임팬들은 만만치 않은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한국선수들은 한류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렸다. LoL 올스타 경기를 관람하며 환호하고 있는 유럽 게임팬들.
사진제공 | 라이엇게임즈

"LoL 최강국 한국에 꼭 가고 싶다"

〈리그 오브 레전드〉

나흘 간 전 경기 매진…암표상까지 등장
유럽 청년들, 한국 프로게이머들에 열광
e스포츠 성지서 열리는 롤드컵 기대 증폭

"한국팀은 세계 최정상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을 궁금해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유저들이 유럽에 정말 많다. 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이 많다. 관광도 할 겸 월드챔피언십(롤드컵)에 꼭 가고 싶다. 한국에서 치르는 '롤드컵'은 대회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이다."(빈첸초 아비타빌레·이탈리아·22)

한국 프로게이머들이 유럽에서 한류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는 축제 분위기였다. 8일은 세계 2차 대전 종전 기념일. 징검다리 휴일을 맞은 파리지앵들은 시내에서 한가로운 여유를 즐겼다. 같은 기간 파리 대중문화공연의 메카 '르 제니스 아레나'에서는 프랑스는 물론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열기를 토해냈다. 세계적 팝스타의 공연이 있었던 건 아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PC온라인 게임 'LoL'의 올스타 프로게이머들이 펼치는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든 인파였다. 푸른 눈의 유럽 팬들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 전 세계로 퍼져나간 e스포츠 문화에 열광했다.

●4일 내내 구름관중…암표상까지 출몰

세계 각 지역 최강팀이 모여 자웅을 겨룬 'LoL 올스타 2014'에는 대회 첫 날인 8일부터 구름관중이 몰렸다. 총 4200여 관중석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심술을 부렸지만, 열혈 게이머들의 팬심을 꺾지는 못했다. 행렬은 결승이 열린 11일까지 이어졌다.

매일 돈을 지불해야 볼 수 있는 4일 동안의 경기는 매진행진을 이어갔다. 입장료는 20유로부터 50유로까지. 팝스타들의 공연보다는 적은 비용이지만 e스포츠 대회치고는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그럼에도 매일 경기장을 찾은 열혈팬을 포함해 나흘 동안 총1만 7000여명이 경기장을 다녀갔다. 행사장 앞에선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팬들을 노린 암표상이 출몰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 날아와 4일 내내 경기장을 찾은 마르코 사에티(22)씨는 "입장권 가격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여기 와서 경험한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표팀 한류스타 못지않은 인기

경기가 열린 르 제니스 아레나는 대중문화 공연장이다. 그동안 브리트니 스피어스, 리한나 등 쟁쟁한 팝스타들이 이곳에서 프랑스 팬들과 만남을 가졌다. 유럽으로 뻗어가고 있는 한류스타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엔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등 SM타운 아이돌이, 최근엔 B.A.P가 이 곳에서 공연을 했다.

르 제니스 아레나에서 e스포츠 경기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선수들의 인기는 팝스타 못지않았다. 관중들은 나흘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접했던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보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경기장은 관중들의 땀 냄새로 흥건했고,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세계 최강 한국선수들의 인기도 한류스타와 다를 바 없었다. 관중석 곳곳에선 한글로 쓰인 치어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페이커' 이상혁(SK텔레콤 T1 K)이 신기에 가까운 컨트롤을 선보일 때마다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에 묻혔다. 10일 열린 준결승 경기에서는 평소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장내 아나운서가 "페이커가 7일 생일이었다"고 밝히자 관중들이 즉석에서 깜짝 생일 노래를 선물한 것. 한국에서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인 '롤드컵'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 아르데슈에서 경기를 보기 위해 6시간 걸려 파리에 왔다는 라파엘(17)은 "SK텔레콤T1 K, 그중에서도 정확한 판단력과 매우 빠른 기술을 구사하며 자신감 넘치는 페이커를 좋아한다"며 "그와 같은 최고의 선수를 배출한 e스포츠의 메카 한국에서 롤드컵이 열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파리(프랑스) |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한국 첫 롤드컵, 전 세계가 공감할 콘텐츠 만들겠다"

〈LoL + 월드컵〉



올 하반기 세계 최대 e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히는 '롤드컵' 한국대회를 준비 중인 라이엇게임즈 이승현 대표가 "전 세계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이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파리(프랑스) | 김명근 기자

▮ 이승현 라이엇게임즈 한국지사 대표

"올스타 마무리 되면 롤드컵에 집중
매출보단 차별화된 재미 제공 노력"

8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LoL 올스타 201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팬들의 관심은 이제 e스포츠 성지 한국에서 올해 하반기 열릴 'LoL 월드챔피언십(롤드컵)'에 쏠리고 있다. 올해 초 라이엇게임즈 한국지사 수장으로 부임해 세계 최대 e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롤드컵'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는 이승현 대표를 파리 현지에서 만났다.

-롤드컵의 한국 개최 의미는.

"이번 롤드컵은 두 가지 부분에서 그 의미가 크다. 먼저 e스포츠의 성지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대회를 개최한다는 상징성이 있다. 또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최하는 첫 대회라는 점도 중요 포인트다."

-현재 준비 상황은.

"한국e스포츠협회, 온게임넷 등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올스타에 집중하고 있어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많은 준비가 돼 있다. 올스타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롤드컵'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역점을 둔 부분은.

"올림픽을 보면 개최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e스포츠 종주국인 한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 세계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에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도 중요하다. 하지만 라이엇게임즈의 철학에선 우선순위가 아니다. 팬들에게 가장 좋은 경험을 주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어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은 시청률과는 별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재미를 전달해 준다. 우리도 점유율보다는 유저들에게 차별화 된 재미를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e스포츠 부문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중요한 것은 에코시스템이다. 아마추어 등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PC방 토너먼트나 대학생,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학원e스포츠 등을 통해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공성대전액션(AOS) 장르 경쟁작이 많은데.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케팅은 생각지 않고 있다. 다른 게임이 잘 돼서 '윈-윈'하는 경쟁을 하고 싶다. 단 플레이어 중심의 서비스에선 지고 싶지 않다."
파리(프랑스) | 김명근 기자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스톱"

갑의 횡포 막는 고시 제정…오늘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른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한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세부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한 고시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번 공정위의 고시는 특히 '물량 밀어내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점 사업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리점주에서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강요하거나 인력파견, 인건비를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이다.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 중도해지,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사총괄과장은 "고시에는 지난해 본사-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불공정행위의 세부유형을 망라했다"며 "(고시가) 공정거래법상 보복금지 규정과 대리점주들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는 고시 제정만으로는 본사와 대리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이건희 회장, 심근경색으로 입원…삼성그룹 비상

귀국 후 무리한 일정 탓에 건강 악화된 듯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입원해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이 회장은 10일 밤 10시50분께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11일 오전 0시15분 강남구 일원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심장의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stent) 삽입시술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감기가 폐렴증상으로 발전하면서 열흘 정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2009년 3월에는 기관지염으로 입원해 나흘간 치료를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귀국한 이후 5일 만에 출근경영을 재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삼성 측은 이런 일정이 이 회장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입원소식이 전해지면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들은 이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급히 귀국해 병원에 도착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이 회장이 시술 후 안정된 상태로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천향대병원에서 초기 응급치료가 잘 이루어졌으며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한 관련 시술도 성공적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이 퇴원하더라도 당분간 출근경영이나 대외활동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모 기자

삼성 견학 340만원? 中 타깃 프리미엄 여행상품 출시

제주·강원도 여행…기존 가격의 두 배
CEO 대상 글로벌 대기업 견학 상품도

'제주 4박5일 150만원, 삼성 견학 340만원.'

왕복 항공료에도 못 미치는 일부 저가 패키지 상품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중국 시장을 겨냥해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여행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중국 시안의 고급 주택가인 진띠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제주도 및 강원도를 여행하는 고가의 방한상품을 내놓았다. 4박5일 일정인 이번 상품은 기존에 비해 가격이 두 배 이상인 프리미엄 상품이다. 제주도 코스가 중국 돈 8280위안(약 150만원)이고, 강원 지역은 7470위안(한화 약 130만원)이다. 모두 특1급 호텔에서 숙박하고 한국 미식 체험을 제공한다. 대기 오염이 심한 시안의 특성을 감안해 제주의 비자림이나 강원의 제이드가든수목원 등 맑은 공기를 체험하는 힐링 코스를 넣은 것이 특색이다.

관광공사 시안지사는 ㈜호텔신라와 공동으로 시안지역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국 '글로벌 대기업'을 견학하는 상품도 내놓았다. 4월 출시한 삼성연수 상품에 이은 두 번째 중국 기업 대상 상품. 5박6일 2만 위안(한화 약 340만원)의 가격으로 삼성딜라이트, 삼성의료원, 래미안 갤러리, 신라면세점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시안에는 현재 삼성이 70억 달러를 투자한 반도체 공장이 있어 공장 유치 이후 대대적인 한국열풍이 불고 있다.

관광공사 이형연 시안 지사장은 "앞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 비해 아직까지 방한 열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륙 지방으로 한국여행 붐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경제 브리핑

한국야쿠르트 45주년 '신 기업가치' 선포

한국야쿠르트는 창립 45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업가치인 '건강한 습관'을 선포하고 가치관경영에 기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치관경영이란 임직원이 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를 경영 전반에 체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한국야쿠르트는 새로운 기업가치를 의사결정 기준과 행동 원칙으로 삼아 경제적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상생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직원 교육은 물론 협력업체와 고객, 나아가 우리 사회에 건강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SKT '분실폰 찾기+' 이용 가능고객 100만명



SK텔레콤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기기잠금과 위치조회는 물론 개인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는 '분실폰 찾기 플러스(사진)' 서비스 이용 가능 고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팬택 '시크릿노트'에 처음 적용한 이후 SK텔레콤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고 있다. 고객센터(국번없이 114)와 온라인 T월드(www.tworld.co.kr)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분실 후에도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 편리하다.

KT '알짜팩' 가입자 대상 황금알 이벤트



KT가 '알짜팩' 신규가입 고객들에게 순금으로 만든 '황금알'을 6월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제공(사진)한다. 1일 출시한 알짜팩은 영상과 음악, 애플리케이션 등 콘텐츠들을 모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콘텐츠 통합팩 상품이다. 6월30일까지 알짜팩 가입 시 자동으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와 올레닷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응모 고객 중 한 명을 추첨해 순금으로 만든 100만원 상당의 '황금알'을 증정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